

##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野話 19

— 희소 (稀少) 현상이 현저한 썰의 출현 —

(1974~76年度 發行分)

이창성/크리스마스 썰 동호인, 수집가

1974년

### 1. 왜 희소하게 된 것일까?



결핵퇴치기금  
부가금우표

그다지 발행년도가 오래된 것이 아닌 데도 수집가들의 수집품에는 소형시이트가 없다든가 혹은 50매 전지는 있으나 100매가 전지가 없어 우표상을 찾아 다니면서 수수문을 하나 입수치 못하고 있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왜일까?

필자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대한결핵협회 30년사에도 구체적으로 논술한 바 없고 다만, 1973년까지 국민이 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폭발적으로 항결핵 자금이 모금되었다고만 되어 있다.

1973년에 41,965천매를 발행한 썰의 약 41%인 17,450천매밖에 발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소형시이트와 50매, 100

매 전지가 어느정도 발행되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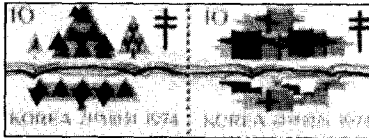
이렇게 적게 썰을 발행한 사유는 표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당시 군이나 관공서에 썰을 할당하여 반강제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민폐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것이 청와대에 알려져서 다른 항결핵 기금조성 방법의 일환으로 체신부에서 결핵퇴치기금 부가금우표를 10,000천매 발행하여 기금을 충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적은 발행량으로 인하여 희소하게 된 것이다.

### 2. 체신부에 제언 (提言)

항결핵기금 조성의 부가금우표는 현재까지 단 1종 뿐이고, 그것도 당시 보통우표 크기의 빈약한 것이었으니 유럽의 스위스, 벨기에, 네델란드 등의 선진국외에 필리핀과 같은 중진국에서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썰 기금을 위한 부가금우표가 해마다 발행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썰의 수집보다도 부가금우표의 수집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그 우표

의 아름다움에도 있으나 희소성에 기인하고 있으니 체신부에서도 외화획득의 방편으로 연차적으로 항결핵기금우표를 포함 2~3종에서 4~5종의 부가금우표를 발행하여 외화도 획득하고 대한결핵협회를 측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니 소리를 높여 이 우표의 계속 발행을 제안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 3.도 안



우표 도안가로 유명한 강 박 씨의 작품으로 한국 고유의 건물과 크리스마스트리를 특유의 선으로 묘사한 것이다.

중간의 선은 수면의 파문이기도 하며, 수면에 비친 영상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나 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매우 난해한 도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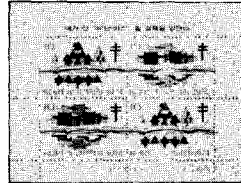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에 와서 단편으로 입수가 힘든 까닭에 Modern Rarity Seal(근대의 진귀한 썸)로써 앞으로 수집가의 증가에 따라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질 것이며, 특이한 점은 전년과 같이 판매가가 썸 인면에 인쇄된 점이다.

### 4.전 지(10×5=50매, 10×10=100매)

50매 전지와 100매 전지의 두가지가 있으며, 어느쪽이 입수가 힘든가 하면, 필자의 경험으로는 50매 전지가 더 힘들었다.

전지의 여백에 인쇄된 호소문, 도안자, 인쇄소, 발행년도 등은 전년과 대동소이하여 변화가 없다.

### 5.소형시이트



2×2=4매의 아담한 크기의 소형 시이트이나 1957년과 같은 형이 아니고, 변지에 천공이 되어 있는데 빗철천공으로 인하여 상하, 좌우발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또한 변지에 호소문과 인쇄소도 인쇄되어 있는데, 입수가 매우 힘들어 모든 수집가들의 갈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 6.각종 자료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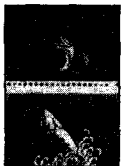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발행년도	1974년	
도안내용	건물선과 크리스마스 트리	
종 수	2종	
도안자	강 박	
인 면	22×32mm	
천 공	단식점공 13½	
쇄 색	4도	
판 식	평판	
전자구성	10×5=50, 10×10=100	
판매가액	10원	
소형시이트	있음 (2×2=4)	
인쇄소	서울신문사	
발행매수	17,450천매	
판매실적	미 상	

# 1975년

## 1. 오쇄(謔)인듯한 발행량

1975년도 썰의 가장 특이한 점은 발행량이 대한결핵협회 30년사에 가장 적은 2,300천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어려울 것이나 그 당시인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어 크리스마스 썰을 통한 기금조성이 대폭적으로 낮추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원색한국우표도감에 매당 400원 이라는 것은 오쇄인듯하다.

## 2. 도 안



학과 잉어

도안가는 이명구 씨이며, 폭포를 올라가는 잉어를 묘사하여 잉어가 폭포를 올라가면 용이되어 승천한다는 중국의 고사를 묘사한 듯 하며, 도안 전면은 바다에 파도와 파도가 부딪쳐서 생기는 물 거품과, 해인지 달인지 알 수 없으나 무엇인가 전체가 상승하는 것을 묘사한 동양의 상징적 도안이다.

또 하나의 도안은 학이라고 하나 구름 위에 날개를 치는 독수리 같은 상징이 짙은 도안이다.

## 3. 전지 (10×5=50매)

50매 전지이고, 변지에는 호소문과 출판사, 도안자가 명기되어 있으며, 전년도와 비슷하다.

## 4. 복십자엽서

한국우표도감에는 복십자엽서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다른 문헌에서는 발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으며, 필자 또한 미발견이다. 그러나 결핵협회 30년사에는 명시된 내용으로는 71년도에서 73년까지 4년간 발행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발행된 듯 하다.

## 5. 각종 자료 (DATA)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년도	1975년	
도안내용	학과 잉어	
종 수	2종	
도안자	이 명 구	
인 면	22×32mm	
천 공	13×13½	
	복식점공	
쇄 색	4도	
판 식	평판	
전지구성	10×5=50	
판매가액	10원	
인쇄소	서울신문사	
발행매수	2,300천매	
판매실적	미 상	

# 1976년

## 1. 도 안

전국 아동작품 현상모집에 출품한 당선작중에서 선택하여 크리스마스 썰을 작성하였으나 외국에서는 썰 뿐이 아니고 우표에까지 아동화가 많이 등장하여 매우 평이 좋으며, 1976년의 썰 도안에

아동미술  
현상작품



서 크리스마스를 제목으로한 아동화는 매우 특이하다.

### 2. 도안자

원색한국우표도감에는 현상모집으로만 되어 있으나 전지의 좌측 여백에는 도안의 당선자가 담청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독자가 일일이 전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으나 미입수자를 위하여 참고로 열거한다.

서울-최석진, 부산-고제윤, 경기-황중석, 김천-이재은, 충북-이현주, 충남-이해옥, 경북-박수연, 경남-최세민, 경북-이제호, 경남-나연미이다.

### 3. 발행량

도안이 10종이니 각종 115천매로서 1,150천매이나 예년의 1/2밖에 발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판매가격이 20원이 되었으니 2,300천매를 발행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4. 판 식

그라비아 인쇄이며 조폐공사의 명판이 있고, 색점(Color Mark)이 우표와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으며, 판번호까지 흑색으로 인쇄되어 있어서 수집가의 기호에 부합하고 있다.

### 5. 전지 (10×5=50매)

50매 전지 한 가지이고 도안에 대한 설명까지 변지 허부좌측에 인쇄되어 있으며, 또한 변지의 호소문은 전년과 대동소이하다.

### 6. 각종 자료 (DATA)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년도	1976년	
도안내용	아동미술 현상작품	현상 작품
도안자 종 수	최석진 외9명 10종	모집
인 면 천 공	22×32mm	
쇄 색	점공단식 13¼	
판 식	4도 그라비아	
전지구성	10×5=50	
판매가액	20원	
인쇄소 발행매수	한국조폐공사 각 115천매 (총 1,150천매)	
판매실적	미 상	

### 참고문헌

- 1). GREEN WORLD SEAL CATALOGUE, The christmas seal and Charity stamp society, Chicago, U. S. A. 1983, by Henry Irwin
- 2). 대한결핵협회 30년사, (1983, -대한결핵협회 발행)
- 3). 원색한국우표도감, (1991-우문관 발행) †